최근 광주시 동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국립광주현대미술관'(가칭·이하 국립미술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미술관 건립은 지난 2000~2003년 3년간 지역미술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으나 학교 이전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 됐었다.

지역 미술인들이 광주시 동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국립광주현대미술관'(가칭) 건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번엔 광주에 '국립미술관' 건립될까

DJ 정부때 지원 약속… 중앙초교 부지에 건립 논의 재점화

미술인들 1천명 서명, 내달 추진위 결성·5월 문광부에 건의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정순이)는 최근 중앙초교 부지에 국립미술관 건립을 촉구하는 미술인 998명의 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협은 오는 3월 문화·사회·경제·정치계 인사들을 망라한 '국립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결성해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술대학 교수·학생과 시민들의 추가 서명도 받아 오는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시아문화전당 부지나 인근에 국립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건립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지역미술인들이 국립미술관 건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광주비엔날레를 치러내는 국제적 미술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서다. 전용 미술관이 없는 현재의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안으로는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미술계는 국립미술관이 건립될 경우 미술관 교류차원에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준 높은 소장품을 광주에서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돼 막대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민미술관 조규일 관장은 "6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지역 미술 기반이 가장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국립미술관이 건립돼야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미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7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 미술관 건립 예산과 학교 이전비 및 부지 확보, 교육청과 학교 동문의 동의 등 건립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광주의 국립미술관 건립 논의는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부의 지원 약속에 따라 광주시가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려, 중앙초교를 이전한 뒤 그 부지에 총 사업비 760억원을 들여 연건평 1만6천528㎡(5천여평) 규모로 추진했었다.

당시 중앙초교가 국립미술관 부지로 논의됐던 것은 도심공동화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활용방안이 제기된 데다 예술의 거리와 연계할 경우 문화 구심체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중앙초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광주시가 학교이전비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한편 중앙초교는 한때 1학년 18학급, 전교생 2천여명에 달하는 이 지역 대표 초등학교였다. 하지만 도심공동화로 학생수가 급감, 현재는 학년당 3학급, 전교생은 190명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미술관 문화수도의 명소 될 것"

한국미협 정 순 이 광주지회장

"국립광주미술관이 건립되면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세계적인 '문화벨트'가 생겨나고, 국내외 관광객도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광주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미협 정순이 광주지회장(56)은 "미술관이 들어서면 광주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미술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립미술관이 광주에 들어서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해외 유명 전시를 광주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지역 젊은 작가들의 육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최근 국립미술관 건립 논의가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시기에 맞춰 국립미술관의 문을 열기 위함이다"면서 "21세기는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인데, 아시아문화전당에 전용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는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미술인이 많지만 시립미술관을 제외하곤 변변한 전시 공간이 없다"면서 "젊은 작가들은 국립미술관의 작가 육성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전시 기회가 생겨 시민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예산 확보, 중앙초교 동문의 반대 등의 어려움으로 국립미술관 건립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현재 국가 차원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에 정치, 경제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영입, 국가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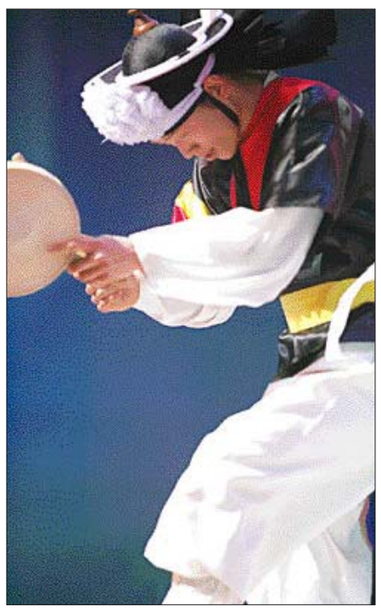
또 "과거와는 달리 중앙초교 동문을 비롯해 시민들의 생각도 미술관건립에 공감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미술인들이 동문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매주 목요일은 우리가락 세계로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내일 '얼쑤' 등 첫 공연



'매주 목요일은 흥겨운 국악의 세계로.'

광주시 서구청이 운영하는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 4일 오후 7시 2010년 시즌 첫 공연을 갖는다.

올 국악한마당은 오는 12월 30일(8월 한달 휴관)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개막 공연은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 타악그룹 '얼쑤'가 장식한다.

11일에는 가야금연주자 정선옥씨가 공연을 진행하며 이세나 아쟁연주회(18일) 기세규 판소리 공연(25일) 등이 열릴 예정이다.

'목요상설공연'은 지난 2003년 7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253회 운영됐으며 모두 4만여명이 관람했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마재근린공원에 자리잡은 빛고을 국악전수관은 국악기 전시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국악기를 배울 수 있는 국악문화학교도 운영중이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야기 선생님' 서향숙 동심을 풀다

첫 창작동화·사진 동시집 출간

'이야기 선생님'으로 불리는 서향숙(57) 시인이 첫 창작 동화집과 사진 동시집을 동시에 출간했다.

첫 동화집인 '날개 달린 사자'(아동문학평론 펴냄)는 표제작 '날개 달린 사자'를 비롯해 '하늘바위' ,'개오지와 부채꼴산호' 등 11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서 씨는 이번 동화집에서 신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며, 이를 이끌어 주는 정신적 기반은 '가족간의 사랑, 이웃 간의 관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이들의 꿈을 표현한 동시에 생명을 불어 넣는 사진을 첨부한 사진 동시집 '찰칵, 내맘 다 찍혔겠다'도 함께 나왔다.

시집은 '광, 찍은 다짐 도장' ,'뽀금뽀금, 갯벌의 숨구멍' 등 총 4부로 나눠 순수한 동심이 담긴 50여 편의 시와 아이들과 즐거웠던 순간을 포착한 사진도 담았다.

여수 출신인 서씨는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방정환문학상, 새벗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동시집 '연못에 놀러온 빗방울', 시집 '그대, 새 움트듯 깨어나 봐요'를 펴냈다.

현재 광주 계수초등학교에 재직중이며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동심의시 회원과 금초문학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이티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

쌍투스 앙상블 6일 시민회관서

아이티 참사 긴급구호를 위한 사랑의 찬양 콘서트가 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 연주홀(광주공원)에서 열린다.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와 쌍투스 앙상블(단장 이선행)이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아이티 대지진 참사 긴급구호사업 구호금 모집을 위한 자선 행사로 성가그룹 '소리엘'(대표 장혁재)과 함께한다.

상투스 앙상블이 '주와 함께 걸으리' ,'주의사랑 비췰때에' 등을 찬양하며 소리엘 단원들은 '사랑하는 자여', '낮은자의 하나님' ,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등의 곡을 부를 예정이다.

공연중에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을 담은 '울부짖는 땅 아이티' 영상도 상영된다.

문의 062-671-950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